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11/13(월)~18(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요기 9:17-3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9:17-35]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모든 자가 멸망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각자의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 멸망당할 모든 자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자입니다. 그 죽음을 보기에 십자가를 놓을 수 없습니다.

2.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행위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행위로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자의 행위로 인해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난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정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하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자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3. 누구도 공의를 이룰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참상을 알기에 거룩을 추구하며 삽니다. 신자는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온전한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겪은 부당한 모든 일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자의 삶을 붙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눔 1. 나의 어떠한 노력에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시나요?

2. 요즘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혹 그냥 장식품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요기 10:1-22]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0:1-22]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 정죄 대신 은혜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찾아내시기 위해 변론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아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불만 대신 신뢰로 욥은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속되는 고난을 겪게 되면,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면서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이유없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3. 의심 대신 믿음으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며 멸시하시는지 원망합니다. 창조주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대한 주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고, 그분이 정하시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런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분이 선한 방향으로 창조하셨다면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눔 1.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2. 지금 나는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의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소발의 조언

[욥기 11:1-2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1:1-20]의 말씀입니다.

소발의 발언도 앞의 두 친구들과 그 구조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특히 8장의 빌닷의 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각각 독립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 규범적 지혜의 주제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과응보의 원리와 연결시키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간의 이해 불가능성과 연결시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1. 네 자랑을 부끄럽게 해주겠다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말 많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로 자랑하는 것을 더는 들어줄 수 없고, 침묵시킬 수도 없으니, 이제 욥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소발은 내 길은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욥을 주께서 깨우쳐주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일이 많아서 잠시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도 가만 두셨는데, 그만 욥의 상태가 너무 심해졌다고 한탄합니다(6절). 소발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했던 것입니다.

2. 네가 하나님 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소발은 욥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거론하면서 그를 반박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다 아는 것처럼 욥이 떠드는 것으로 보아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은 하늘 아래와 스올 위의 세계만 겨우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스올의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까지 다 통달한 자처럼 욥이 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8절) 그분이 재판을 하신다면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그 앞에서 욥은 얼마나 허망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소발의 생각입니다.

3. 이제 네가 할 일은 회개다 소발은 욥이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손의 죄악을 버리고, 불의가 네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확인한 것이 아니면서 욥의 불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그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환난이 물 흐르듯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16절). 그때 흠 없다고 생각하는 욥이 얼굴을 들게 되고, 공평한 판결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도망할 곳은 없고 죽음만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눔 1. 소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자신이 볼 때는 죄라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죄가 아니었던 사건이나 상황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기도 나의 판단과 기준보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사랑과 용서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치 있는 고난

[요기 12:1-2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2:1-25]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지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행동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보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순된 현실이 엄연히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수고가 많고 고단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십시오.

2. 여호와와 손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이지만 놀랍게도 약한 것이 멸종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약한 것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하물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특별한 행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3. 창조주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하찮은 불편이든 심각한 고민거리이든 노후에까지 이어질 아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과 관련해 누구나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이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기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생각하십시오.

- 나눔**
1. 현재 쾌락과 이익이 아닌, 고난 가운데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기쁨을 찾아 가고 있습니까?
 2. 고난을 참아 내고 시험을 이겨 내며 계속 전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까?

기도 현재의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요기 13:1-19]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3:1-19]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힘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1.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술과 재물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욕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자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고통과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그 상황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협소하며 적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알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3.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까지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감으로 참된 위로를 얻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면 살게 하옵소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요기 13:20-14:22]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3:20-14:22]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우 큰 어려움에 휩싸일 때 고난에 압도당해 실망하고 실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소중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1. 존귀한 삶 요은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였습니다. 고난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무기력한 자신만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으로 사람의 가치가 변할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성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 거룩한 삶 요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발견하고 벌하실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실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과 의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거룩을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소망의 삶 요은 자신의 삶이 나무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찍힌 나무는 다시 소생하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무보다 못하다니요, 죽으면 끝이라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눔 1. 하나님께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2. 내세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